

2018년 7월 31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3 거래일 연속 1%대 하락 FANG의 몰락(페이스북 -2.19%, 넷플릭스 -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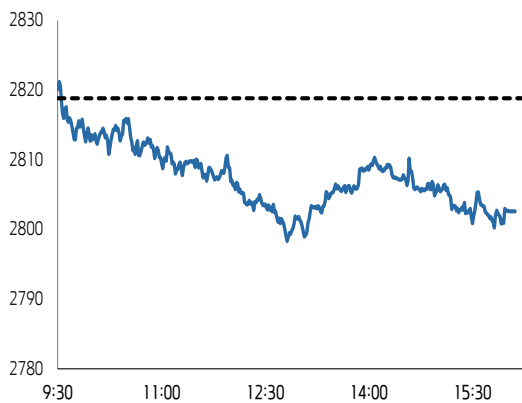
애플 실적 중요도 증가

미 증시는 FANG 기업들의 하락 여파로 부진. 장 초반 원유시장 강세와 FOMC 를 앞두고 에너지주와 금융주에 힘입어 상승 출발. 그러나 최근 이어지고 있던 기술주 특히 FANG 기업들이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유입되며 매물이 출회되자 하락 전환. 오후 들어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했으나, 힘이 부족한 양상(다우 -0.57%, 나스닥 -1.39%, S&P500 -0.58%, 러셀 2000 -0.61%)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27 일) 기준 연초 대비 12% 상승. 신흥국 증시는 무역분쟁 여파로 부진한 가운데 나스닥의 상승은 돋보인 모습. 특히 넷플릭스(+85%), 아마존(+55%) 등 일명 FANG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 이들의 상승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 점이 주요 요인.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IT 업종은 지난 2017 년 3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증가를 기록한 이후 2018 년 2 분기에도 22.4%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되는 등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그러나 2 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 되면서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자 3 분기 IT 업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결국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하반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 하자 기술주들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입되며 매물 출회.

한편, 오늘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는 양호한 실적과 연간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 다만,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로 비용이 2 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 비록 원유시장 강세에 힘입어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부담. 더불어 회사 매출의 1/4 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매출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기반 전년 대비 39% 증가 했지만 무역분쟁이 격화에 따른 매출 둔화 우려감을 해소시키지 못함. 결국 미 증시는 IT 업종의 향후 전망 둔화 우려감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비용 증가 해소시키지 못하자 부진. 다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의 경우 매물이 제한되었음. 시장에서는 애플의 실적 발표(31 일)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주들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93.51	-0.06	홍콩항셱	28,733.13	-0.25
KOSDAQ	769.80	-0.54	영국	7,700.85	-0.01
DOW	25,306.83	-0.57	독일	12,798.20	-0.48
NASDAQ	7,630.00	-1.39	프랑스	5,491.22	-0.37
S&P 500	2,802.60	-0.58	스페인	9,854.10	-0.14
상하이종합	2,869.05	-0.16	그리스	758.18	+0.90
일본	22,544.84	-0.74	이탈리아	21,941.01	-0.0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하락 주도

페이스북(-2.19%), 넷플릭스(-5.70%)가 실적 발표 이후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며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여파로 알파벳(-1.82%), 아마존(-2.09%) 등 일명 FANG 기업들도 동반 하락했다. 더불어 MS(-2.15%) 또한 매물이 출회되었다. 반면, 애플(-0.56%)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폭은 제한 되었다. 보잉(-2.66%) 등 항공사와 록히드마틴(-1.23%), 제너럴다이나믹(-1.20%) 등 군수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조건 없이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자 하락했다. 캐터필라(-1.97%)은 양호한 실적과 향후 전망 상향 조정에 힘입어 4%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했다.

반면,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코노코필립스(+1.15%), 셰브론(+1.48%) 등 에너지 업종은 상승했다. 한편, JP모건(+0.60%), BOA(+0.80%) 등 금융주는 FOMC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 머크(+2.08%), 브리스틀마이어스(+3.53%) 등 제약주는 상승한 반면, 바이오젠(-2.63%)은 하락 하는 등 바이오주는 부진하는 등 차별화를 보였다. 유전자 분석업체인 일루미나(-3.95%)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 외로 8% 가까이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80%	대형 가치주 ETF	+0.22%
에너지섹터 ETF	+1.72%	중형 가치주 ETF	-0.18%
소매업체 ETF	+0.45%	소형 가치주 ETF	+0.02%
금융섹터 ETF	+0.07%	배당주 ETF	+0.11%
기술섹터 ETF	-1.56%	변동성 ETF	+3.06%
소셜 미디어업체 ETF	-3.68%	대형 성장주 ETF	-1.18%
인터넷업체 ETF	-3.10%	중형 성장주 ETF	-1.69%
리츠업체 ETF	-0.09%	소형 성장주 ETF	-1.23%
주택건설업체 ETF	-0.08%	신흥국 고배당 ETF	+0.54%
바이오섹터 ETF	-1.11%	신흥국 저변동성 ETF	-0.11%
헬스케어 ETF	+0.06%	하이일드 ETF	+0.08%
곡물 ETF	+0.63%	물가연동채 ETF	-0.05%
반도체 ETF	-0.68%	Long/short ETF	-0.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70.98	+0.84%	+3.58%	+1.68%
소재	371.05	-0.23%	+2.10%	+2.03%
산업재	632.36	-0.94%	+1.74%	+5.03%
경기소비재	881.28	-0.78%	-1.15%	+1.27%
필수소비재	547.13	-0.07%	+1.45%	+3.41%
헬스케어	1,018.07	+0.10%	+1.23%	+5.41%
금융	467.04	+0.02%	+0.73%	+5.87%
IT	1,239.79	-1.78%	-3.41%	+1.74%
통신	150.76	+1.95%	+3.15%	+1.78%
유틸리티	265.29	-0.60%	+0.73%	+0.76%
부동산	200.13	-0.05%	+0.02%	-0.8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03% MSCI 신흥 지수도 0.1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527 계약)에도 불구하고 0.45pt 하락한 297.3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2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IT 업종의 성장 둔화 우려감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향후 실적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다만,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컸던 IT, 바이오 업종이 부진한 반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부진했던 종목의 경우 반등 하거나 낙폭이 제한되는 등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다.

한국 증시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확산되며 KOSPI 기준 연초 대비 7.05% 하락했다(KOSDAQ - 3.58%). 이를 감안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미 증시와 달리 우려감이 크지는 않다. 특히 전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57%에 달하는 등 2분기 실적 시즌 또한 나쁘지 않다. 이는 미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한편,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지난 7 월 6 일 잠정 실적 발표에서 매출(qoq - 4.23%)과 영업이익(qoq -5.37%) 모두 전 분기 대비 둔화 되었다고 발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과 주주환원 정책 발표 여부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이 결과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 증시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된다. 한편, 한국 시각 1 일 새벽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 한국 증시 투자심리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 외 중국의 제조업지수와 BOJ 통화정책 결과도 주목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표 개선

미국 6 월 잠정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9% 증가하며 주택 지표 개선 기대감을 높였다.

7 월 달라스 연은 지수는 전월(36.5) 보다 둔화된 32.3 으로 발표되었으나, 시장 예상치(31.0) 보다는 개선된 결과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힘입은 원유 시추시설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 7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예상치(0.4%)를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중동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승했다.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에 공격한 것이 이란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사우디와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미-이란 분쟁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되었다.

달러지수는 유로화 강세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미-EU 간의 무역분쟁 완화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래리 커들러 위원장이 미-EU 간의 농업 협상을 곧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유로화 강세 요인 중 하나 였다. 더불어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이어진 점도 유로화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다. 중국의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이는 등 관망세가 짙은 양상이다.

국채금리는 FOMC 를 앞두고 단기물은 하락한 반면 장기물은 소폭 상승 했다. 한편, BOJ 통화정책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양상도 특징이었다. BOJ 결과 발표 이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FOMC 를 앞두고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0%, 철근도 0.10%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0.13	+2.10	+3.30	Dollar Index	94.373	-0.31	-0.27
브렌트유	74.97	+0.92	+2.61	EUR/USD	1.1705	+0.41	+0.11
금	1,231.50	-0.10	-0.23	USD/JPY	111.05	0.00	-0.27
은	15,537	+0.28	+0.73	GBP/USD	1,3131	+0.20	+0.23
알루미늄	2,094.00	+1.11	+1.21	USD/CHF	0.9884	-0.61	-0.38
전기동	6,250.00	-0.75	+1.96	AUD/USD	0.7405	+0.07	+0.33
아연	2,557.00	-1.50	+0.08	USD/CAD	1.3033	-0.17	-1.06
옥수수	381.25	+1.33	+2.69	USD/BRL	3.726	+0.39	-1.52
밀	546.50	+3.02	+6.37	USD/CNH	6.8291	+0.17	+0.35
대두	891.00	+0.65	+3.27	USD/KRW	1120.20	+0.19	-0.99
커피	111.40	+0.86	-0.22	USD/KRW NDF 1M	1117.26	+0.18	-1.3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73	+1.86	+1.87	스페인	1.423	+5.30	+4.60
한국	2.571	+0.10	+3.10	포르투갈	1.764	+4.90	-0.20
일본	0.102	-0.20	+1.60	그리스	3.859	+4.80	+2.90
독일	0.446	+4.30	+4.00	이탈리아	2.782	+4.30	+14.60